

주 제 강 연

<주제강연>

“생명을 귀하게, 삶을 새롭게”

박 영 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I. 주제에 대한 이해

제32회 한국 YWCA 전국대회의 주제는 “생명을 귀하게, 삶을 새롭게”이다. 생명을 귀하게 라고 한 것은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것은 지구환경 위기의 요인이 되고 있는 환경파괴 현실을 지적하고 있을 것이다. 오늘의 환경위기는 지난 200년간의 산업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현인류의 생활양식에 의한 것이라고 할때 주제는 문제와 답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오늘의 생명위기의 극복은 우리의 잘못된 생활양식을 변혁하는데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최근까지 모든것을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해 왔으며 지구와 생물권이 인간의 복지만을 위해 창조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한 동양과는 달리 자연을 정복대상으로 여겨왔던 서구인들의 사고와 행동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 인류가 처음으로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보게 된 것은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였다. 그때 인간이 발견되게 된 것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인간이 생물권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인류의 사고의 전환은 제2의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이며 여타 생물들도 인간에게 유무익을 불문하고 독자적인 존재의 권리와 존재양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브라질에서의 92년 지구 포럼에서 선포된 “지구헌장”의 첫머리에서 인류를 동식물과의 공동체로 규정하는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누가 말한대로 우리는 지구를 선조에게서 물려 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서 빌려쓰고 있다고 한 것처럼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포함한 전 인류와 타생물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 책임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부과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의 표현을 빌려서 말한다면 현 세대의 인류의 필요충족을 미래세대의 권리 침해가 없는 한도에서 추구되어야 한다는 “지속 가능한 생계” 이것이 바로 “생명을 귀하게, 삶을 새롭게”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II. 우리가 사는 오늘의 세계

1962년 농약의 해악성을 파헤친 퇴첼 카슨의 “침묵의 봄”과 70년대의 롬클럽의 “성장의 한계” 보고서가 세계인에게 충격을 안겨준 사실에 둔감했던 우리들도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물 문제를 비롯해서 공기, 식품, 산업공해병, 무뇌아 탄생문제등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최근에는 활발한 환경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급부상한데에는 오늘의 환경파괴 현상이 한 국가내에 머물지 않고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72년의 스톡홀름 유엔 인간 환경회의와 92년 리우 유엔환경과 개발회의, 그리고 금년 맨체스터의 지구 포럼 '94를 비롯 수많은 대규모의 환경관련 국제회의가 개최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환경은 계속 악화일로에 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110여개국가의 정상들이 자리를 같이 하였던 리우 지구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었던 12일간에도 어김없이 300만 인구가 늘어났으며 1,680,000대의 차량이 반출되었고 2,160만평방마일의 산림이 사라지고 144,000배럴의 기름이 바다에 유출되었는가 하면 4억5천6백만 파운드의 폐기물이 바다에 투기되었다. 또한 6억7천2백만톤의 탄산가스과 18,000톤의 CFCs가 대기권에 방출되었고 최소한 312,000명 어린이가 기아등으로 죽어갔는데 같은 기간에 세계의 군사비로 지출된 300억불이 적절하게 쓰여졌던들 이런 문제들은 해결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

왜 그런가? 그것은 20%의 세계 인구가 80%의 세계자원을 소모하는 개발 국가들의 기득권 고수의 입장과 나머지 20%의 자원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80%의 세계 인구는 생존을 위해 또는 개발국의 생활수준을 따라가기 위해 환경문제는 고려할 여유가 없다는 입장에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데 원인이 있다. 오늘의 지구환경의 위기인식에서는 이견이 없으나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 사항의 합의도출이 어려운 것은 국제적, 정치, 경제, 사회구조 및 체제가 “남북간의 이해대립”, “국가간의 이해대립”을 뛰어 넘을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더더욱 어려운 것은 지구환경 문제해결의 열쇠가 오늘날 유권자들(중산층의 기호에 따른)을 의식하여 단기적인 안목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정부와 이윤에 집착할 수 밖에 없는 기업(특히 다국적기업)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있다. 강대국과 강자의 논리에 의해 만들어진 가부장적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구조와 체제 속에서 지구환경의 보전내지는 복구작업은 어렵다는 것이다. 즉 “지구는 하나인데 세계는 하나가 아니다”라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근래에 와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구 환경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세계질서를 위해서도 지구 사회의 구조 및 체제의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여기에 모인 우리(YWCA)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YWCA는 민간단체중에서도 전형적이며 대표적인 민간단체이다. 민간단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국경, 국적, 계층, 계급 등 일체의 벽을 넘어서 연대하고 주장하고 행동할 수 있어서 국익에 매임없이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행동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데 있다. YWCA는 특히 생명의 담지자인 여성들의 기독교운동체라는데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만 한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오늘의 지구환경을 이토록 위태롭게 만든 주역들인 남성들만에게 더이상 세계를 전담시켜서는 안된다는데 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우리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결의기구로 전달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92년도 리우 유엔 환경과 개발회의의 178명의 정식대표 중에는 여성이 10명도 되지 못했다. 1975년을 여성의 해로 선포하고 동등한 참여를 주창하고 있는 유엔회의가 이 지경이었다. 여성들은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하기 위해 예를 들면 리우 지구포럼에서 유명 연예인을 동원하기까지 했다. 미국의 여배우 쉐리 맥크레인도 그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렇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유엔이 갖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인식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리우 회의의 문건등에서 보면 여성은 인구조절정책에서의 출산자로서 또한 폐기물 배출억제를 위한 소비자등으로 간주하여 교육대상자로 아니면 청년 및 토착민(부당한 처우를 받는)과 한몫음으로 피해자로 취급하고 있는 점이다. “아녀자”로 어린이와 여성을 무능력자로 취급한 천여년전에 쓰여진 성서와 다를바가 없다. 여성의 인간화 문제는 수단으로서가 아닌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

지난 2월 중순 대만에서 개최된바 있는 “‘94 지구여성 정상회의”에서 발제의 기회가 있었는데 여성들의 의결기구에서의 평등한 참여를 성취해 내기 위해서는 세계여성들의 뭉쳐진 힘으로서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무역등에 환경규제를 하듯이 성차별에 대한 국제적 제제를 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의한바도 있다.

오늘의 세계는 국가의 힘이 약화되는 반면 다국적기업, GATT, NGO등과 같은 사회적 조직의 힘이 커지는 추세에 있다. 세계인구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이 정치세력화 된다면 여성차별과 환경수탈의 장벽을 무너뜨릴 힘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국내의 성차별 해결문제도 유엔등의 국제기구에서 부터의 개혁에서 추진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 과제를 국제적으로는 150년에 가까운 역사 그리고 70여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YWCA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III. 대회에 대한 시기적 중요성

“생명을 귀하게, 삶을 새롭게”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32회 한국YWCA 전국 대회는 국내외적으로 아주 중요하고도 적절한 시기에 개최되게 되었다. 그만큼 책임 또한 중대하다.

국제적으로는 이 대회가 21세기를 향한 역사적 전환점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는 지금 80년대의 동서냉전의 종식으로 새로운 세계질서 모색에 부심하고 있으며 오늘의 인류역사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구 환경보전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대로 오늘의 지구 환경문제 해결은 남북간의 또는 국가간의 이해대립으로 그 해결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이런 추세로 나가다가는 동서냉전에서 남북전쟁으로 이전되어 핵전쟁이 아닌 지구환경의 보복으로 인류는 물론 생태계가 파멸될 우려가 있다고 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한국YWCA는 이러한 교착상태를 풀어내고 새로운 지구시민 사회 윤리 기준으로서 “하나의 세계건설”에 얼마나 공헌할 수 있는가 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그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95년에 한국YWCA 지도력의 주도적인 역할에 의해 한국에서 세계YWCA 대회와 그에 앞서 북경대회에서의 NGO 포럼준비 위한 세계여성 지도자회의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유엔이 주최하는 제4차 세계여성 대회가 이웃나라 베이징에서 열리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여성대회야말로 세계여성의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구이기에 그렇다. 이제 문제되는 것은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가 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통념에 입각한 통상적인 목소리여서는 안된다. 지금까지의 목소리에 또 하나의 목소리를 보태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의미가 없다. 방법도 마찬가지이다. 95년도에 유엔에서는 지구개편 작업도 예정하고 있어 세계여성들이 하기에 따라서는 변혁을 성취해 낼 수도 있다.

국내적으로는 95년에는 지방 자치제선거, 96년에는 총선, 그리고 97년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보다 완전한 시민사회 시대를 여는 시점에서 이 대회가 열리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사회에서의 투표권행사

의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빈부의 격차, 도농간의 격차, 농촌과 농업의 위기, 환경오염, 성차별, 약자차별등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오늘의 우리나라 현실에서 우리의 각급 의결기구 및 집행기구로 하여금 “더불어 사는 사회 윤리”에 입각한 정책을 펴게 하기 위해서는 각 선거에서의 우리들의 투표권 행사가 올바르게 되어야 한다. 한국 YWCA가 국제적으로 “하나의 세계건설”에 공헌하기 위해서도 우리 사회의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의 과제를 중시해야 할 것이다. 유의해야 할 점은 세계YWCA 대회와 세계여성 지도자회의 준비라는 과중한 책임과 겹친다고 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들 과제는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IV. YWCA의 과제들(사명)에 대한 제언

오늘날 한국YWCA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대단한 것이다. 창설 이래 회원들과 지도자들이 쌓아놓은 업적, 공신력, 도덕성, 조직력, 지도력 그리고 영향력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자산은 YWCA라는 울타리안에만 한정지워져서는 안되는 한국의 모든 여성의 공유자산이다. 한국 YWCA가 한국여성의 힘만으로 육성된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보면 세계여성의 공동자산이기도 하다. 국내 외적으로 절호의 시기에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서야말로 YWCA가 가진 자산을 백분활용하여 한국의, 그리고 세계의 여성운동의 분기점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여성운동으로서, 국제적운동으로서, 시민운동으로서, 회원운동으로서, 청년운동으로서 더더욱 기독교운동으로서의 YWCA가 이번 대회에서 도전해야 할 사명은 막중하다. 해야 할 과제를 외면하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예전과 다름없이”로 만들거나, 지나치게 겸양해서 관망자가 되거나 해서는 안된다. 한국 YWCA가 이번 대회에서 설정하려는 프로그램중점인 생명운동, 바른 생활운동을 한국 YWCA의 프로그램 중점으로만이 아닌 세계 YWCA운동, 나아가서는 세계여성 운동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야한다.

예1) 지속가능한 생계로서의 생태적 삶 운동

생명운동과 바른생활 운동은 오늘의 지구가 요구하고 있는 “생태적 삶 운동”으로서 지구의 생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양식의 제시가 필요하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을 위한 결단을 하는 일이다. 지구환경 문제가 인구가 늘어나고 많은 것을 만들어서 많이 쓰고 많이 버리는데서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UNEP의 사무총장인 모스타파 톨바가 “브라질 회의가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가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한 리우회의에서조차 논의되지 못했다. 부쉬 대통령의 경우 “생활수준은 흥정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기까지 인간의 행태의 시정은 쉬운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장벽을 어떻게 뚫고 “지속 가능한 삶”의 모델을 설정하고 성공 사례로 이끌어 낼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이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펴낸 환경관련 또는 환경과 여성자료에서 보면 “지속 가능한 삶”의 성공사례는 천편일률적으로 사막화 되어가는 자연 속에서 어떻게 삶을 극복해나가고 있는가 하는데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잘못된 소비태도의 전환에 관련된 성공사례는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하면 가진자들의 생활양식의 변화는 없다는 것이 된다. 나를 포함한 우리들의 생활양식을 개혁하기 위한 결단이 이 대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95년도의 베이징대회에 한국 YWCA가 세계 YWCA와 연대하여 생활양식 개혁의 성공사례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적어도 이러한 문제들이 세계 YWCA 대회와 유엔 여성대회에서 논의되도록 유도하고 이에 따른 세계여성들의 결단의 기회를 만들어내야만 한다. 이것이 92년 리우 지구포럼에서 민간 단체들이 지구 정상회의의 “리우선언”과 “의제 21”의 대안으로서 만든 “지구 헌장”과 “의제 21 대체협약”을 이행하는 것이 된다. 대체협약에는 지구 정상회의에서 배제된 의제들인 다국적기업, 전쟁, 핵, 군사비, 인구, 빈곤, 도시화, 그리고 화석연료 사용문제등 지구 환경보전의 핵심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어 중요하다.

예2) 하나의 세계운동으로서의 희년운동

한국YWCA는 평화와 통일을 위해 희년사업을 전개하려고 한다. 불행하게도 아직도 분단으로 인해 냉전체제하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로서는 당연한 과제이다. 모든 누적된 오류현상을 원상으로 되돌려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한다는 희년정신은 분단의 고통에서 우리 민족을 헤어나게 하는데에도 중요하지만 계속 부익부 빈익빈의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구조 및 체제로 치닫고 있는 세계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또한 오늘의 지구환경을 살리기 위한 방책으로서도 희년정신의 발휘는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희년운동을 하나의 세계운동으로서의 희년운동으로 연장시키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이번 대회에서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예3) 한국YWCA의 국제적운동 강화

우리는 환경문제에 있어서나 경제문제에 있어서 국경 없는 세계에 살고 있다. 세계 인류는 상호 연대관계 속에서 살 수 밖에 없게 되어있다. 이러한 국제화 또는 세계화 추세에서 국제적 운동으로서의 오랜 역사를 가진 YWCA의 역할은 각별해진다. 한국YWCA가 세계YWCA의 A급 회원국이 된지도 수십성상이 지났다. YWCA의 창시국가인 영국YWCA등이 이제는 하나의 사회기관으로 남아 있는 것에 비해 한국 YWCA는 지금도 사회운동적인 특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강점이다. 이러한 한국YWCA가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일에 공헌해야 한다.

GNP가 세계 15위이며 교역량이 세계 12위인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의 국제화 수준은 방콕과 마닐라에도 뒤지는 46위에 머물고 있다는 충격적인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한 나라의 발전상을 여성의 지위로서 평가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여성의 지위는 세계 155개 국가중의 최하위권인 140위(의회진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YWCA는 주목해야 한다.

국제회의 개최 빈도도 평가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세계YWCA 대회나 세계 여성지도자 회의를 유치한 한국YWCA의 공은 크다. 그러나 한국YWCA는 여기에 머물지 말고 국제기구 유치에 있어서나 국제기구에서의 인력진출을 위한 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노력이 바로 국제적 운동으로서의 한국YWCA가 감당해야 할 과제이다.

예4) 생활운동으로서의 시민자치운동 강화

오늘의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의 표어가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있다. 환경위기의 논의는 국가정상들의 원탁회의나 대규모 회의에서 되어질 수 있으나 생명운동의 실천은 어디까지나 지구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각기 발 딛고 서있는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의 실천적 참여 없는 운동은 지구 환경을 살리지 못한다.

95년 지방 자치선거 이후 우리나라는 지역 주민이 지역주인으로서 지역사회의 환경을 지키며 살림을 책임지는 시민자치 시대에 접어든다. 어느때보다 더 시민운동 전개가 중요한 시기이다. 생활 운동체로서의 YWCA는 환경운동의 대중화와 정치화를 위해 지역단위 소집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의 삶의 질서를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며 3년간의 프로그램 증점을 실효있게 성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예5) 생협운동으로서의 농촌운동 부활

UR 국면에서 논란이 있기도 한 바이지만 시장개방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농촌과 농업의 위기는 심각한 문제이다. 92년 리우에서의 유엔환경과 개발회의에 대한 평가에서 감점요인의 하나도 바로 각 국가의 식량자급력 보전을 위한 문제가 논의에서 배제된 일이었다. 리우회의에 앞서 미국 환경처의 92년도 연구 결과 보고서에서 21세기에 들어서면 10억이상의 세계인구가 식량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있었던터라 더욱 문제되었다.

제32회 YWCA 전국대회

주제강연 및 발제



시 일 : 1994. 7. 13-15

장 소 : 웨라톤 위커힐 호텔

목 차

주제강연/ 박영숙	3
-----------------	---

- 생명을 귀하게, 삶을 새롭게

행정정책 발제

- 회원의 성장과 발전 / 전대련	15
- 지도력 발전 / 윤석인	20
- 재정 발전 / 이윤구	25

프로그램 발제

- 생명운동 / 박은경	31
- 희년운동 / 김윤옥	41
- 바른생활운동 / 김태련	46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논경작의 문제는 식량문제 뿐만 아니라 홍수조정등 여러가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한다. 논 경작은 3년간 포기하면 그 기능을 상실한다는데에도 문제가 따른다. YWCA의 생협운동은 유기농법 장려, 유기폐기물의 퇴비화 운동, 화학농약 대신 생물농약 개발, 그리고 직거래운동 전개등을 통해 농촌과 농업을 살리는 운동으로 전개되기를 바란다. 한국YWCA의 초창기의 농촌운동과는 그 내용을 달리 하지만 그와 같은 정신으로 YWCA의 농촌운동을 부활시켜야 할 시점에 와 있음을 지적한다

예6) 청년운동으로서의 YWCA운동 강화

어떤 조직체이건 그 조직체의 장래성은 그 조직체에 가담하고 있는 청년층을 보고 예측한다. 특히 환경운동 전개에 있어서는 청년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이미 세계 여러나라에서 청년들의 독자적인 환경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92년도 리우에서의 청년의 참여의 중요성은 재강조 되었었다. 한국YWCA가 이번 대회를 기해 50-70년대의 Y-틴 또는 대학YWCA 운동의 활력을 되찾을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다.

V. 맺는 말

창세기 1장의 창조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라는 구절이 반복될 정도로 좋은 피조물들이 오늘날 “내가 지어낸 사람이지만 땅 위에서 쓸어 버리리라. 공연히 사람을 만들었구나(창세기6,7)” 하는 하나님의 한탄이 터질 수 밖에 없는 생태계 위기의 오늘의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의 책임, YWCA의 책임은 무엇인가?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간의 관계를 바로 잡는 일이 우리 모두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